

## 2020 년 8 월 30 일 “창세기의 사람들(8) 바벨의 사람들”(창 11:1-9)

오늘은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간의 죄성과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하시는 행동을 통해 요즘 처한 팬더믹의 삶의 정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 [1]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

인간은 표현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작고 약하지만 거대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것은 뛰어난 소통과 협동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누구(무엇)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 왕 됨(kingship-다스림, 창 1:26)의 본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나라의 왕이 자기만 위해 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다스림의 본분을 주신 하나님과 맡겨주신 피조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욕망을 채우려 하면 하나님과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 속에서 소통과 협력의 목적은 힘을 길러 높은 탑(고도의 발전이 요구됨)을 쌓음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계에 타격을 입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모습에 ‘나는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며, 무거운 짐이며 지기에 곤비하다’ 하십니다(사 1:14). 하나님은 사람이 본분에서 이탈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역행이 스스로 멈출 수 없음을 아십니다(6 절).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소통과 협동의 능력을 거두심으로써 욕망의 질주를 멈추십니다(7 절).

### [2] 흩어지는 바벨의 사람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7, 9 절). 이에 사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번영과 편리와 규합된 힘(power)을 날려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룬 번영과 편리는 인간을 통해 피조계로 흘러야 할 복의 흐름을 끊고 창조의 완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계를 손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엄지로 으뜸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엄지가 나머지 네 손가락을 합친 것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엄지가 손을 다 차지하려고 하면 기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와 행동은 창조를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의식과 태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만을 위한 파워 추구입니다. 이 파워 게임에 빠지면 주님과 동료 사람과 피조계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런 파워 추구의 죄성에서 고집어 내셔서 창조의 참 파트너로서 회복시키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을 일단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도모하시는데 그 일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다음 시간부터).

### [3] 팬더믹 상황 속에서

바벨로부터 흩으신 사건을 보면서 요즘 팬더믹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사례는 유례에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성상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만나는 크고 작은 모임들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바이러스 전파에 손쉬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모임에 제한을 받으면, 이 때,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의 예배, 교제, 성경공부, 목장 모임 등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은 지속되고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힘과 편리를 추구하게 됩니다(인간중심으로). 모임을 되도록 편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 시간 예배, 용이한 주차, 주일학교, 봉사, 시스템의 원활성 등... 필요한 일들이지만 편리와 힘을 추구하면 영적인 것을 가장한 인간 중심의 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흩으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망해 흩어집니다. A.D. 70년에는 나라가 로마에 의해 나라가 산산조각 나서 흩어졌습니다. 다른 형태지만 지금 팬더믹으로 말미암은 흩어짐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당신 백성들을 흩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피조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합 3:2). 그리고 다시 모으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요한 계시록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또 피조계가 멋지게 회복된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완성의 날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배워야 할 것을 묵상하며(준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훗날 다시 모일 때, 예전과 같은 마음과 태도가 바뀐 것이 없다면 팬더믹을 통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 <맺음>

이 시기에 함께 인내하며 개인과 교회의 과거를 성찰하고 주님을 만나 영적 새로움의 경험, 즉 개인적인 내적 부흥을 간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창조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함께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바벨의 사람들과 오늘 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 나는 팬더믹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